움직이는 물… 움직이지 않는 산… 그것은 섬진팔경

송만규 작가의 개인전 '섬진팔경'이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

송 작가는 1993년 서민들의 일상을 사실적인 수묵채색화로 표현한 첫 개인전을 가진 후, 2000년대부터는 섬진강을 소재로 한 현대 산수화를 선보여 왔다.

그의 작업에 대한 사유는 물방울에서 시작, 커다란 강으로 확대돼 섬진강을 차용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움직이는 물'의 변화를 관찰하다가 이후엔 '움직이지 않는 산'을 함께 수용하게 되면서 섬진 팔경을 얻었다.

섬진팔경의 사계절 그림에 대해 송 작가는 계절마다 산기슭에서 산꼭대기를 누비다가 각별히 눈길과 마음이 머문 여덟 곳에 주목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섬진강 실경은 송만

송만규 작가 개인전

계절마다 산기슭에서
산꼭대기 누비다가
마음이 머문 곳에 주목
섬진강 팔경 사계로 나눠

규식 사유의 도해라고도 할 수 있다.

송 작가의 섬진강 팔경은 길이 2m 정도의 작품이 주종을 이루지만 어떤 것은 11m, 심지어 24m 대작도 있다. 이들 작품은 섬진강 팔경을 사계로 나누어 표현, 총 32점의 대작을 얻었다.

이들 작품은 실감나는 현장성을 자아낸다. 그는 "작품에는 자신이 지나간 길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대상 하나하나에 대한 감정이자 애정의 표시일 뿐"이라며 "그림에 표현된 작은 길, 바위 그리고 나무들은 자신이 보고 느꼈던 대상에 대한 일종의 예의"라고 말한다.

그의 작품 중 구담마을을 그린 그림에서는 돌로 놓은 징검다리가 곧추선 것처럼 또렷이 놓여 있다. 이를 그림에 담아낸 것은 임실에서 구담마을로 들어설 때 자신이 하나하나 밟으며 지난 곳이기 때문. 그의 발자국과 바라 본 시각이 사실적인 표현으로 그림에 담겼다.

이와 함께 작가는 섬진강 자연을 조형화 위한 어법을 활용했다. 대소의 괴량감과 소밀의 조화, 그리고 담묵과 적묵 등으로 변화감을 줘 섬진강의 진면목을 화면에 담아내고 있다.

작가는 국내외 갤러리에서 21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한국근현대산수화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저서로는 그림과 글로 엮은 '섬진강, 들꽃에게 말을 걸다'가 있다.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의장·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족미술인협의회 회원·한국묵자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문화유산 가치 확대에서 높이 평가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7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A)을 받았다.

소리축제는 평가가 시행된 이후, 5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 (2015년 B우수를 제외한 2014~2018년 A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주관기관의 정량적 평가, 행사별 관람객 만족도 조사 점수 등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은 현장실사와 평가 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강점과 약점,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평가결과 소리축제는 준비, 실행, 성과 및 환류 등 기본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으며 A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의견서에 따르면 소리축제는 "한국 전통음악의 다양한 변화와 월드뮤직의 비교감상"을 통해 "우리 소리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축제의 성격인 일탈·놀이·공동체 의식의 본질을 잘 이해하여 다양한 현대적 기법을 통해 현대인들의 문화향수권을 신장시킨 점, 지난 15년간 DB 구축을 통한 한국음악 역사적 존엄성 확립과 보존에 일조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우수한 문화 인력들의 참여를 통한 조직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예술의 다양한 사업 군과의 결집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점도 호평을 얻었다.

/정해은 기자

'문학과 영상매체, 둘이 만난다면?'

전북소설가협회, 천성래 영화감독 초청 세미나

전북소설가협회는 천성래 작가 겸 영화감독을 초청해 '문학과 영상매체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및 제5회 소설낭독회를 진행한다.

17일 오후3시 전북문학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영화 '소록도'의 천성래 감독과 함께 소설과 시나리오, 드라마와 영화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의견을 나눈다.

천성래 감독은 지난해 영화 '밀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과 원작의 장르적 특징을 분석, 현실적인 소설의 영화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선보여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저서로는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다룬 대하소설 '국경의 아침'이 있다.

이날 자리에서 천 감독은 활자와 영상매체라는 예술장르를 넘나들며 섭렵한 자신만의 식견을 현장감 있게 전할 예정이다.

정영신 전북소설가협회 회장은 "문학으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도록 문학 기행, 문학과 음악의 만남, 전북 역사와 문학의 만남, 지역 이민자와 함께하는 문학의 밤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16일 예술인지원 사업설명회

(재)완주문화재단은 2018 예술인 지원관련 5개 사업의 통합설명회를 오는 16일 오후 3시 복합문화지구 누에 커뮤니티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완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지원관련 5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공모일정 등 주요 내용을 지역 예술인들과 공유하고, 예비신청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단은 지역의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창작지원사업·예술인성장지원사업 '예술배낭여행'·예술로창업인큐베이팅·로컬푸드예술이되다 '예술농부'·청년작가 '완주한달살기' 등 5개 사업을 운영하며, 총 2억여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연수 및 탐방을 지원하는 예술인성장지원사업 '예술배낭여행'이 진행된다.

또한 최초, 성장, 원로의 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지원과 창작공간조성, 정산 없이 지원하는 작은예술지원도 새롭게 마련됐다. 작년에 이은 '예술인창작지원사업'은 지역예술계의 의견수렴자리를 통해 기초예술분야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